



지난 15일 광주시 북구 양산동의 한 뷔페식당에서 열린 '다문화가정 무료 돌잔치'에서 중국 출신의 이주여성 장리핑(28)씨가 남편 정종표(38)씨와 함께 아들의 '돌잡이'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제야 한국사람 다 됐네요”

국제결혼 광주 정착 이주여성 5가족 '특별한 돌잔치'

“돌째 아이 만이라도 돌잔치를 치러줄 수 있게 돼 기쁩니다. 그간 TV로만 보던 돌잔치를 직접 해보니 이제야 비로소 한국사람이 된 듯한 기분입니다.”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 릴리벳(32)씨는 “이제 두 살인 첫 아이 때에 ‘돌잔치’라는 게 있는 줄은 알았지만 어려운 생활환경상 업무 조차 못했다”며 “한국에 온 지 3년이 지나야 진정한 한국의 정서를 알아가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오후 6시 광주시 북구 양산동의 한 뷔페식당에선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국제결혼을 통해 광주지역에 정착한 이주여성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함동 돌잔치’가 치러진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다문화가정 부모들과 가족들은 물론, 한글교실 등에서 인연을 맺은 동료나 지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한 다문화 가족들은 첫 생일을 맞은 다섯 명의 아이들을 축하하느라 곳곳에서

웃음꽃이 피어났다.

특히 이날 돌을 맞은 아이들의 엄마들에게 있어서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한국생활 경력은 2년~9년까지 다양했지만 모두들 처음으로 치러보는 돌잔치에 대한 기쁨과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다문화가정에 문화 알리기

관련 업계, 무료로 치러줘

이주여성들은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돌잡이’ 행사가 열리자 아이들의 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모두 한 살배기가 마이크, 볼펜, 지폐, 청진기 중 어떤 것을 손에 쥐느냐에 따라 아이의 운명이 점쳐진다는 사실에 고개를 가웃거렸다.

하지만 이들은 아이의 지폐를 잡으면 부자가 되고, 마이크를 쥐면 가수나 아나운서가 될 것으로 본다는 설명에 이내 환한 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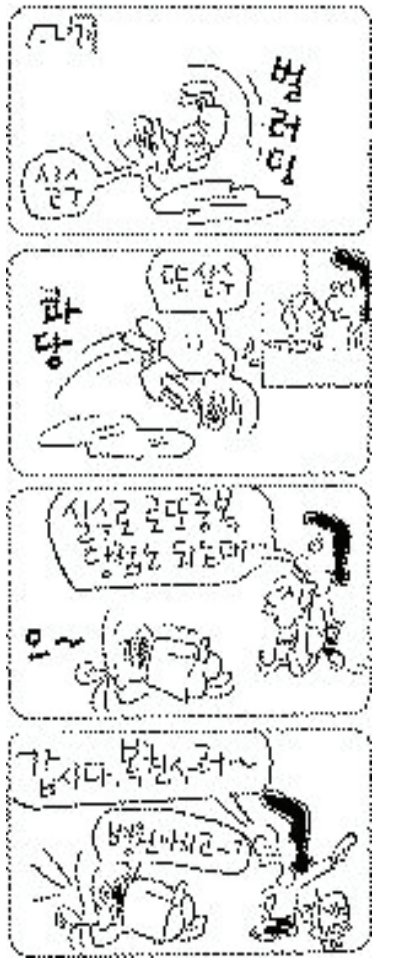
을 지었다.

릴리벳씨는 “돌잔치가 한국에서 이렇게 중요한 행사인지 몰랐다”며 “필리핀에선 장난감을 선물하는 게 고작인 데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돌잔치를 주며 축하해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중국 출신의 장리핑(28)씨는 “중국에서도 가족과 친척들이 생일을 축하해주긴 하지만 한국처럼 돌잔치를 하지는 않는다”며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 1년을 건강하게 보낸 것을 축하해주던 데서 비롯됐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서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인터넷 카페 ‘전남·광주 첫돌잔치’ 회원 등 광주·전남 돌잔치 관련 업계가 한국 문화인 돌잔치를 다문화 가정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했고, (사)다문화가정 사랑회와 ‘북구자원봉사센터’가 릴리벳·중국 출신 결혼 이주여성의 한 살 배기 다섯 명을 선정해 이뤄졌다. /김형호기자 khh@

나원침 (7706) 김종두



마스크 쓰면 ATM서 돈 못 뺀다

‘얼굴 인식’ 현금인출기 설치 재추진

강·철도 범죄를 줄이기 위해 얼굴을 과도하게 가리는 인출자에 대해서는 작동이 되지 않는 ‘얼굴 인식’ 현금자동인출기(ATM)를 도입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경찰청은 16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시중 은행 등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예방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입은 강·철도 피의자들이 ATM에서 피해자들의 예금을 인출할 때 마스크나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해 얼굴을 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인출자의 얼굴이 인식되지 않으면 작동을 멈추는 ATM을 은행 창구에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얼굴 인식 ATM은 2004년 제품화돼 2005년에는 모 은행에

서 2주간 시범운영까지 했지만 이후 호지부지 끝나 현재로서는 이를 도입한 은행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는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기계 한 대 당 20만원 이상의 설치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무엇보다 은행 입장에서는 범죄로 인해 인출된 돈이 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아쉬울 것도 없기 때문이다.

개발사 측은 이 시스템을 1만 대 이상 설치하면 설치비를 대당 10만원 선으로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하는 뜻을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얼굴 인식 ATM은 범죄자들이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는 것을 막아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지만 아직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며 “은행권에 이 시스템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커피 하루 3~5잔

노인성 치매 예방

중년부터 커피를 하루 3~5잔 마시는 것이 노인성 치매를 막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AFP통신과 메디컬 뉴스 투데이가 15일 보도했다.

핀란드 쿠오피오 대학교 스웨덴 카를린스카 의대 연구팀은 50대 남녀 1천409명을 대상으로 20여년에 걸쳐 실시한 조사분석 결과 하루 커피를 3~5잔 마시는 사람이 전혀 마시지 않거나 아주 적게 마시는 사람에 비해 나중에 노인성 치매 발생률이 60~6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차는 마시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지만 치매와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남구 ‘나눔 장터’ 복적

설날을 앞두고 16일 광주 남구청 광장에서 ‘나눔 장터’가 열렸다. 이날 장터에서는 남구 직원들과 주민 등 600여명이 기증한 재활용품과 명절 제수용품 등이 싸값에 판매돼 알뜰 주부들의 인기를 끌었다. 남구자원봉사센터는 판매 수익금의 50%를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고 남은 물품은 복지시설에 기증하기로 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실날을 앞두고 16일 광주 남구청 광장에서 ‘나눔 장터’가 열렸다. 이날 장터에서는 남구 직원들과 주민 등 600여명이 기증한 재활용품과 명절 제수용품 등이 싸값에 판매돼 알뜰 주부들의 인기를 끌었다. 남구자원봉사센터는 판매 수익금의 50%를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고 남은 물품은 복지시설에 기증하기로 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주말·휴일 따뜻한 날씨... 눈 대신 비

18일 광주·전남에 비가 내리는 등 주말과 휴일에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6일 “주말인 17일 광주·전남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큰 추위는 없을 것”이라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2~3도 높은 영상 7

도~10도로 예상됐다. 기상청은 “휴일인 18일 오후부터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1~5mm의 비가 예상되며, 이날 비가 눈으로 바뀔 가능성은 작다”고 예보했다. 휴일 광주·전남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8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부부간 강간죄 첫 인정

부산지법 40대 유죄 판결

부부간 성행위에 대해 강간 혐의를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부인을 성폭행한 남편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적은 있지만, 강간죄를 적용한 사례는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6일 필리핀인 아내(25)를 유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L(42·회사원)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강간죄의 대상인 ‘부녀’에 ‘혼인중인 부녀’가 제외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법이 강간죄로 보호하려는 대상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기에 아내 또한 이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戰 당시 불감산, 담양·장성, 순창 등 5곳서 민간인 2,227명 군경에 희생

진실화해위 밝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6일 “한국전쟁 때 함평군 불감산과 담양·장성 등 5개 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모두 2천227명이 경찰과 치안대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가 이번에 사건을 규명할 지역은 불감산과 담양·장성, 순창, 서산·태안, 함양 등 5곳으로, 모두 한국전쟁 무렵 군경의 부역자 색출 및 빨치산 토벌 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불감산 사건은 1951년 2월 함평군 해보면 불감산 일대에서 주민 90명이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건으로, 군경이 임산부를 사살하거나 마을에 남아 있던 노인의 집에 불을 질러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육군 기록에 “적 1천5명을 사살했다”고 보고한 점과 ‘공비토벌사’에 적의 규모를 350명으로 기록한 점으로 미뤄 희생자는 확인된 규모(90명)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담양·장성 사건은 1949년 5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민간인 57명이 경찰 특공대와 의용경찰 토벌대에 의해 희생됐다. 당시 경찰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살해를 저지르는 잔혹성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순창 사건은 국군과 경찰에 의해 1950년 1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최소 129명의 민간인이 살해된 사건이다. 희생자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등이 전체의 48%에 달했다.

특히 충남 서산·태안사건은 경찰과 치안대가 1950년 10월부터 3개월간 이 지역 부역혐의자 1천865명을 희생시킨 사건으로, 지금까지 규명된 사건 가운데 단일 사건으로는 희생자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경남 함양지역에서는 1949년 5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빨치산과 내통했다는 이유로 군·경이 민간인 86명을 사살했다고 진실화해위는 전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40분 해질 17시 45분 달출 1시 1분 달몰 11시 04분

주말엔 가족과 오손도손
오전에는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맑은 뒤 흐림	-2/8
목포	맑은 뒤 흐림	0/9
여수	맑은 뒤 흐림	0/8
완도	구름 조금	0/10
구례	구름 조금	-4/8
제남	맑은 뒤 흐림	-3/10
장흥	맑은 뒤 흐림	-4/10
고흥	맑은 뒤 흐림	-4/9
순천	맑은 뒤 흐림	0/8
영광	맑은 뒤 흐림	-4/8
진도	맑은 뒤 흐림	3/9
전주	구름 조금	-2/7
남원	구름 조금	-4/8
속초	구름 많음	3/9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18(일)	19(월)	20(화)	21(수)	22(목)	23(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3/8	-1/7	-1/8	2/7	2/7	-3/2

광주·전남교육감 판공비 공개하라

시민단체 소송 제기

광주시와 전남도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밝은세상)은 16일 “안순일 광주시 교육감과 김장환 전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2006년도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2006년도 한해 두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총액과 상세내역, 영

수증 등이다. 밝은세상은 “지난해 11월부터 교육청에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식비, 출장비 등 단순회 항목만 내열한 서류를 보내왔다”며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가 언제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가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밝은세상은 지난해에도 두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청 BTL(임대형민자사업) 협약자 전부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한 바 있다. /김형호기자 khh@

광주지검 차장 정동민 검사장급 4명 추가 인사

법무부는 16일 정동민(49)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승진 발령하는 등 검사장급 4명에 대한 추가 승진 인사를 오는 22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사는 정 차장검사와 이건리(46) 전주지검 차장, 박정수(51) 서울남부지검 차장, 이득홍(47) 서울북부지검 차장 등 모두 사법시험 26회 출신이다.

정 차장검사는 부산 출신으로, 금성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서울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보담당관, 광주지검 순천지점 차장검사, 부산지검 2차

장 등을 지냈다.

또 이건리 차장은 함평 출신으로 전주지검 차장검사로서 이례적으로 검사장인 서울고검 송무부장급으로 승진했으며, 박정수 검사장과 이득홍 검사장은 각각 대전지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급으로 발령났다.

법무부의 이번 추가 조치는 지난 13일 실시된 검찰 정경인사에서 ‘좌현성’ 인사로 박영관(57) 제주지검장과 조한욱(53) 광주고검 차장 등 4명이 사표를 냈에 따라 이뤄졌다. 법무부는 이르면 19일께 각 지검 차장검사를 및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경호기자 choice@

여성 피의자 팔 골절

경찰 자체 진상조사

광주의 한 경찰 지구대에서 수갑을 채우려던 경찰과 몸싸움을 하다가 20대 여성의 팔이 부러져 관할 경찰이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16일 광주서부경찰 사무지구대에 따르면 김모(여·23)씨는 지난 1일 새벽 4시께 서구 사무지구대에서 이 지구대 소속 양모(여·28) 순경 등과 몸싸움을 하다가 왼쪽 팔이 부러져 상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이날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무지구대 K(32) 순경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경찰은 사무지구대에 설치된 CCTV 화면과 해당 직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사실이 없을 땐 고소에 맞대응할 계획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3개월간 50회 날치기

광주 도심에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3개월 동안 여성 50명의 손가방을 날치기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16일 차량 날치기범 강모(40·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미혼인 강씨는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일감이 줄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형기자 golee@

찜질방 입고 찜질방 잠복 강도 검거

○광주북부경찰은 16일 호프집 여주인을 흥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박모(40)씨 등 2명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7일 새벽 3시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G호프집에 들어가 주인 C(여·43)씨를 흥기로 위협한 뒤 현금 17만원과 휴신카드를 빼앗아 도망간 혐의로 150만원의 인출해 도주하는 등 307만원의 금품을 빼앗아 도망간 혐의.

○경찰은 박씨가 광주 시내의 한 찜질방에 들어갔다는 정보를 입수해 형사 5명에게 찜질방을 일해 5시간가량 방 앞에서 기다리던 중 찜질방 마치고 식사를 하러 나온 박씨를 검거.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